

# 세계로 가는 '한국불교'



해의불교칼럼

오늘날 불교는 오늘날 다양한 모습으로 미국에 뿌리를 내리는데 그 가운데 티베트불교가 미국 전법의 선두주자인 일본과 중국에 비해 단기간에 엄청난 저변을 형성했다. 이는 티베트불교와 국제정황이 서로 잘 맞아떨어진 상승효과에 기인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외교적인 견제, 즉 미국이 특정한 주권침해와 인권문제 등을 들어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하게 하고 있어 티베트는 꽤 쓸만한 카드이며, 그 덕분에 티베트불교는 일종의 반대급부적인 전법 상 혜택을 받는다 해서도 가능하다. 게다가 일반미국인들의 약소국 티베트에 대한 연민, 그리고 히말라야산맥과 티베트고원의 오지에 숨겨진 '이상향'이란 막연한 신비감과 적잖게 작용한다.

그러서 미국의 불교관련 학자들 중 전 내티어 교수는 티베트불교의 일과성 및 전법 한계성을 우려하며, 성급한 이들은 달라이라마의 사후에 미국불교의 침체를 속단하기도 한다. 한편, 1960년대부터 동남아시아의 분쟁으로 인한 집단이민과 함께 미국으로 들어간 태국, 베트남불교 등은 아직 초기 도입단계다.

그렇다면 미국에서 우리 한국불교의 입지는 어느 정도일까? 각자 견해차가 있겠으나, 국제전법에 있어 우리는 한마디로 '우물 안의 개구리'다. 이제라도 잘 나아가주길 염원하던 터에, 얼마 전 우리 한국불교의 역사적 자력을 새삼 일깨우는 기쁜 소식이 있었다.

3월 4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 로스앤젤레스(UCLA)의 불교학센터는 철학, 종교, 역사 등을 망라한 한국고전의 시리즈발간을 담당할 수석편집장을 17일까지 공개 초빙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등 센터에서 기획 출판하는 한국고전들은 대부분 한국불교의 한문 경전



1986년 뉴욕주립대학에 한국학과 헌원이 걸렸다. 왼쪽에서 세번째가 박성배 교수 그 다음 한복차림은 소리꾼 임진택. <사진제공=박성배교수·해안출판사>

및 문헌들이다. 세계적인 불교학자들이 공동 번역에 참여할 이 프로젝트의 편집장은 동 센터의 원장도 겸임하게 된다. 진지하고 열정적인 한국 인재를 선정되길 간절히 바라는 중문 특 <원 각 경 (The Sutra of Perfect Enlightenment)>의 영역본이 떠올랐다. '한국 불교의 참신지침'란 부제로 1999년 뉴욕주립대학 출판부에서 발간된 그 책을 번역한 분은 놀랍게도 찰스 필러라는 미국인으로 일본의 도요가쿠엔 대학의 교수다.

필러 교수는 송유배불정척의 서릿발 가운데 한국불교를 지킨 기화 선사께서 시원스런 주해를 달아 주어진 <원각경>의 한문 원전을 자신의 정교한 해설을 덧붙여 영역했다. 몇 년 전 미국의 어느 경제학교수가 보내준 그 책을 받았던 감동이 아직도 새롭다. 사실상 그 역사의 산파 역할을 한 분이 바로 한국인 박성배 박사였기 때문이다. 1933년 전남 보성에서 태어난 그는 시골서당에서 유학을 배우고 대동사에서 수행했으며, 동국대 교수를 거쳐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에서 원효의 대승기신론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1977년

스토니브룩 뉴욕주립대학교 비교종교학 교수로 부임한 그는 1986년부터 한국학과장 및 한국학연구소장으로 일한다. 그는 후학지도 및 저술활동과 함께 1993년 뉴욕 주립대학 출판부의 한국학연구총서 책임편집인, 1997년 원효전서의 영역기확립편집장을 맡았다.

필러 교수는 책머리에 박성배 교수에 대해 이렇게 썼다. "이 일을 마침에 있어 가장 감사할 드려야 할 분은 내가 대학신입생 때부터 대학원 과정을 마칠 때까지 훌륭한 학구적 불꽃을 지펴주시고 격려해 주시며... 또한 한국 불교의 거대한 보고로 안내해주신 박성배 은사님이다. 내내 은사님을 모시고 이 고귀한 지식의 영역을 영어상용지역으로 넓혀갈 수 있기 바란다." 이국땅에서 외롭게 정진해 오신 박성배 교수, 그리고 그의 고매한 인품과 학문을 함께 배운 필러 교수, 그 두 분은 한길을 가는 미더운 동반자이었던 사제지간이다.

번역: 성휴 스님, 출처: UCLA학보  
뉴욕주립대학 박성배교수 홈페이지  
www.sunysb.edu/asianandam/park\_sungbaeshlml

## 페리스힐튼 불교서 자아찾기 노력

미국의 유명 패션모델이자 패션 디자이너며, 영화배우와 가수를 겸한 만능탤런트인 금년 27세의 페리스 힐튼이 무절제한 파티공의 이미지를 벗어 던지고 자아를 찾아가 불교의 한 노스님에게 영적 구원을 청하고 있다.

또한 최근 그녀는 그 스님과 함께 '채색된 사면의 길'이란 책의 독후감을 나누기도 하고 로스앤젤레스의 불교전문 서점인 보디 다르마에서 불교의 깨우침과 관련된 서적을 찾는 것이 목적이기도 했다.

다. 세계적 거대 호들의 상속자인 그녀가 사문스톤, 우마 서면, 티나 터너, 제니퍼 로페즈처럼 할리우드의 메가 스타 보살의 대열에 합류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체코 불자협 사찰건립금 지원 요청

3월 5일자 체코의 체타카 통신에 따르면, 체코의 진언종 불자협회는 모라비아주의 수도인 부르노 시에 사찰 신축을 위한 자금 지원을 유립연합(EU)에 신청했다.

체코 정부에 신앙단체로 공식 등록된 진언종은 최근 들어 특히 브르노 일대에서 그 신도가 증가 추세에 있는바, 대규모 불교 도서관을 포함한 동 사찰이 완공되면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폴란드 등 인근 국가들의 청소년과 대학생 및 일반불자들의 공동체로서 동유럽 전법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출처: CTK  
현대불교구독신청 02)2004~8200

# “‘禪 수행’ 선원에서만 하나요?”

월드스타 불심도스타

필잭슨

미국 NBA 농구의 대선사인 필 잭슨에 대해 말하자면 먼저 선(禪)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가 바른 순서일 듯하다. 사람들은 누군가 선을 수행하면 절이나 선원에 다니는 줄로 지레 짐작한다.

게다가 요즘엔 구두선이란 단어조차 원래의 의미에서 한참 비껴나 행동이 따르지 않은 빈말, 그리고 선문답은 일반상식과 논리에서 벗어난 헛소리쯤으로 통용되기도 한다. 물론 거기에 불교와 선에 대한 종교적 편견과 거부감도 내포되어 있다. 그러나 그 모두가 단체포퓰러 무지의 소치다.

선은 불교용어지만 다른 종교에서도 그와 유사한 명상이나 목상을 한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어느 절대적인 말씀이나 신 내림을 구하며, 다른 이들은 '나'를 찾아 길을 떠난다. 그리하여 유일신의 추종자들은 마침내 절대자의 계시를 받았다고 감격하며, 무량들은 신기를 얻었다고 신명을 낸다.

그런가하면 불가에선 고요히 스스로 깨우침을 얻었다고 한다. 인간은 동서고금을 통해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때론 되레 생각을 멈추려 애써왔다. 다만 문화 종교적 해석, 그리고 시대적 관념과 형식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예컨대, 미국에서 1970년대 이후 바람을 일으켰던 '초월명상(TM)'은 바쁜 현대인을 위한 속성버전인바, 그저 하루에 두 번씩 이십 분쯤 눈을 감기만 하는 특이한 명상기법이다.

선은 한국, 중국, 일본 등에 자리를 잡은 대승불교의 대표적 신앙 형태다. 매순간 스스로 깨우침을 통해 삼라만상의 본질을 헤아린다는 것이 선의 사전적 정의다.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선은 중국에서 비롯하나 그 이전에 선을 중국으로 들여간 이는 보디다르마, 즉 달마 대사다. 중국

인이 아닌 그가 6세기 경 인도에서 동쪽으로 건너온 시대적, 지리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선의 원류는 고대힌두신앙임을 유추할 수 있다.

선이라는 단어 자체가 산스크리트와 팔리어로 명상을 뜻하는 디아나 또는 지아나를 중국어 초안나(禪那)로 음역한 뒤 나를 생략한 것이다. 소림사의 선 수행 중 하나인 쿵푸(功夫)의 권법과 불술 등도 당시 보디다르마를 따라온 쿠투바리사이, 실발법과 같은 인도전통무술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보디다르마가 사거(死去)한 뒤 중국의 역대 선행은 후이커, 상찬, 다오신, 흥런, 후이닝 등으로 이어졌다. 동아시아에서 선의 주요개념은 전법, 즉 지고지순의 지혜인 다르마를 널리 펼치는 것이다. 이는 세존의 열반 이후 면면히 이어져 온 가르침의 승계를 뜻한다.

선에 대한 다른 표현들을 보면 그 특성이 더욱 명확해진다. 불법을 불경 이외의 방식으로 전한다 하여 '교외별전', 영어권에선 'A special transmission outside the Buddhist Scriptures'라 한다.

그리고 말과 글에 의존하지 않는다 하여 '불립문자', 영어로는 'No dependence upon words or letters'라 한다. 또한 마음에 곧바로 내리 쏘는 듯하여 '직지인심', 또는 'Direct pointing to the human mind'라고도 한다.

그리고 본성을 헤아려 붓다의 모습에 이른다 하여 '견성성불', 곧 'Seeing one's own nature and attaining Buddhahood'라 일컫는다. 또는 스승이 없이 홀로 깨우치는 길이라 하여 '무사독오', 곧 'Independently enlightened without a teacher'라고도 한다.

신라 후기 학승들이 중국에서 들어온 선은 고려 때 크게 꽃을 피우고 지날 스님은 순수한 선 수행을 위해 송공사를 창건한다. 그 이래 조계종은 한국의 선불교를 대표하며 혜균, 태고, 기화, 휴정 등 역대 대선사들을 통해 지금까지 이른다. 하연 오늘날 수많은 미국인들은 언제 어떻게 선과 접하게 됐을까?

성휴 스님

생활영어로 읽는 불교



## We heard you are enlightened perfect. Is that true?

### 자네가 득도 정각에 이르렀다니 그게 참말인가

The Master solemnly announced at last that a young monk had reached an advanced state of enlightenment. The news caused some stir. Some of the monks went to see the young monk. "We heard you are enlightened perfect. Is that true?" they asked. "Maybe," he replied. "And how do you feel now?" "Damn it! as miserable as ever," murmured the monk with heavily sleepy eyes.

선사께서 마침내 한 절은 학승이 득도의 경지에 이르렀다고 엄숙히 선언하자, 여기저기서 술렁였다. 그의 문도들이 학승에게 찾아가 물었다. "자네가 득도 정각에 이르렀다니 그게 참말인가?" "그런가봐," 그가 대답하자 그들은 다시 물었다. "그래 지금 기분이 어떤가?" "젠장! 만할 엉망진창이 뭐." 그가 잔뜩 졸린 땀을 흘리며 대답했다.

번안: 성휴 스님 / 그림: 이태수

# 청동불상 제작전문

청동불상 · 천불 · 삼천불 · 만불 · 개금 · 탱화 · 금고 · 범종



지장 보살님

석가모니 부처님

관음 보살님

장인정신에 입각해 혼을 불어넣은 조성. 대덕스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조성. 40여분의 개금불사 전시로 스님들의 폭넓은 선택기회 마련. 탁월한 재질, 섬세함, 깨끗한 개금처리의 우수성. 대덕스님들의 많은 성원과 조인 바랍니다.

대표 이상식 합장

- 성화불교전시관 : 02)2209-0080
  - 성화불교미술원 : 031)591-1022
  - 휴대 폰 : 011-302-1022 주·야 상담 합니다
- 서울시 중랑구 망우1동 133-33 태창빌딩 1층

## 청동불 40여분 전시중

인터넷으로도 성화불교전시관의 작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성화불교전시관 부처님 상חו를 보시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창에서 [114도우미] 검색 → 114도우미 홈페이지에서 [성화불교전시관] 검색 → 사진첩 클릭

◇ 오시는 길 >  
성화불교미술원(경원)



대한민국 운명록 運命錄

과학적으로 證明된 精確한 論리와 臨床을 통한 입증된 學說 - 대한민국 운명록

운명학 역사계에 돌풍을 일으킨 경악과 충격의 베스트셀러 [대한민국 운명록]의 저자

모든 사람의 운명을 내가 볼 수 있다!  
입상실함을 거친 독보적인 운명사 도대어 대공개!

서적구입 문의 032)665-8472  
교보문고, 전국대형서점, 불교서적

## 전수생 모집

- 스님이나 불자로서 포교원을 운영중이거나 운영할분
- 해광스님 직강
- 문의 : 010-3730-5247

## 일반상담

- 해광스님의 운명 상담을 원하는 분은 미리 예약하셔야 합니다.
- 예약문의 : 032)665-8472

## 금강禪院 · 금강불교대학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3동 533-7 인터넷 다음에 <금강선원 해광스님>